

德谷 洪鐘韻의 『己卯司馬同年契帖』*에 관한 研究

A Bibliographical Study on Gimyo sama tongnyung kyechub made by Hong Jong Woon

盧 基 春(Ki-Chun Roh)**

< 목 차 >

- | | |
|---------------------|--------------|
| I. 緒 論 | 1. 서지 및 형태분석 |
| II. 德谷 洪鐘韻의 家系와 生涯 | 2. 내용분석 |
| III. 『己卯司馬同年契帖』의 분석 | IV. 結 論 |

초 록

『己卯司馬同年契帖』은 1639년 司馬試에 합격한 동기생들이 계회를 연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본 연구는 『己卯司馬同年契帖』의 형태적 특징과 계첩에 수록된 <契會圖>, <座目>, <序文>, <契會詩> 등을 분석하여 <契會圖>에 있는 인물과契會의 사실, 계첩의 제작과 의의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본 계첩은 이전의契會圖와 다른 형태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1639년 司馬試에 합격한 동기생 4명 가운데 冶谷 崔尙虎, 甘湖 金鼎華, 德谷 洪鐘韻 등 3명이 1656년 가을 영암 월출산에서 계회를 연 후, 전라도 강진의 전라병영에 소속된 화원에게 명하여 계첩 4부를 제작하고 간직하여, 후손들이 서로 각별한 인연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계첩을 제작하였음이 밝혀졌다.

키워드: 己卯司馬同年契帖, 契會圖, 同榜契會, 崔尙虎, 金鼎華, 洪鐘韻

ABSTRACT

Gimyo sama tongnyung kyechub(己卯司馬同年契帖) was made in 1639 to commemorate the meeting for successful candidates who had passed Samasi(司馬試). This study analyze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Gimyo sama tongnyung kyechub(己卯司馬同年契帖), which includes kyehoe-do(契會圖), list of identification(座目), preface(序文), poem of meeting(契會詩) and try to find out who is in the illustration, what happened in the meeting, and why they made this book comprehensively.

According to the research, this book has different physical characteristics from others made earlier. It is revealed that the three men - Choi Sang Ho(崔尙虎), Kim Jeong Hwa(金鼎華), Hong Jong Woon(洪鐘韻) - out of four who passed the exam in 1639 held a meeting at the Mount. Wolchul in YoungAm in the fall of 1656. After that, they ordered the painter who belonged to Jeonla government in Gangjin, Jeonla province to make four copies of this book for the purpose to continue their relationship cross the generations.

Keywords: Gimyo sama tongnyung kyechub, Kyehoe-do, Tongbang kyehoe, Choi Sang Ho, Kim Jeong Hwa, Hong Jong Woon

* 『己卯司馬同年契帖』은 德谷 洪鐘韻의 13대 後孫인 宗孫 洪智英이 소장하고 있다가 현재는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위탁 보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서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하였음을 밝혀둔다.

** rohide@hanmail.net

• 접수일: 2012년 2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2년 2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2년 3월 23일

I. 緒論

契會圖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모임, 곧 만남의 미학을 담은 것¹⁾으로, 契會의 범주는 같은 관청의 동료들로 결성된 同官契會,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한 官員들의 都監契會, 科擧試驗의 합격 동기생들의 同榜契會와 나이가 같은 관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同庚契會, 元老 官僚들의 耆老會·耆英會, 그리고 사적인 만남을 기념한 契會 등의 類型이 있다.²⁾

우리나라에서 士人들의 契會는 고려시대에 이미 성행했고, 그 유행은 조선시대로 계승이 되었으며, 또 이를 기념하고 보존 전승하기 위해 畫幅에 그 모임의 모습을 그리고 參加者(契員)들의 姓名과 略傳事項을 기록하는 東洋繪畫史上의 특수한 朝鮮王朝의 契會圖의 발전은 아마도 15세기 까지만 이미 이루어졌으리라고 믿어지며,³⁾ 15세기 契會圖는 4점이 현존하고 있다.⁴⁾

16세기 계획도는 入直과 送別, 賜家讀書, 전·현직 관료의 만남, 同甲이나 과거 동기생의 모임을 기념해서 제작되었는데,⁵⁾ 이 시기는 계획도가 가장 정형화된 시기로 내리닫이 족자형으로 모임을 기념한 산수화 형식의 그림을 포함해서, 그림 상단에 전서체로 쓴 모임의 題名과 그림, 참여자 명단을 나열한 座目으로 틀이 갖추어졌다. 또 그림의 여백이나 아래의 별도 공간에 名士의 기념시를 받기도 했고, 座目 좌우에 梅竹圖를 각각 장식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16세기의 계획도는 座目에 밝혀진 관료들의 위상과 기념화의 산수양식 때문에 역사적 문화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근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16세기 계획도는 26점 가량 된다.⁶⁾⁷⁾

17세기는 16세기 식의 계획도 형식은 점차 사라져 족자형식에서 시화첩 형태로 축소되었고, 그것마저 의금부 관료모임을 그린 1606년 作 <金吾契會圖> 정도가 그 퇴락된 형식의 전통을 이었는데,⁸⁾ 지금까지 63점이 현존하고 있다.⁹⁾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己卯司馬同年契帖』은 1613년(광해군5) 이곳 호남에서 태어나

1) 유흥준, 이태호 편,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조선시대 계획도와 전별시(서울 : 학고재, 2000), p.92.

2) 尹軫暎,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博士學位論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藝術專攻, 2004), p.2.

3) 안희준,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歷史學報, 第六十五輯(1975, 3), p.117.

4) 尹軫暎은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의 <附錄2> 契會圖 目錄에서 1488년 作 <靄臺契會圖>와 1499년 작품으로 추정되는 <十老圖帖> 2점과 後模本인 <十老圖像卷> 1점, 1790년 金弘道가 그린 <十老圖像帖> 1점 등을 제시하였다(尹軫暎, 전계서, p.407).

5) 유흥준, 이태호 편, 전계서, pp.93-94.

6) *Ibid.*, pp.92-93.

7) 尹軫暎은 국내와 일본에 있는 15세기 계획도 57점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15세기 작품은 <(燕山君)日記洗草之圖> <汾川獻宴圖> <薇垣契會圖> 등 51점, 18세기 작 <耆英會圖> 1점과 18세기 模寫本 <中廟朝書筵官賜宴圖> 1점, 19세기 작 <中廟朝書筵官賜宴圖> 등 2점과 模寫本 <中廟朝書筵官賜宴圖> 1점, 그리고 『古書備考』에 수록된 <漢城府郎官契會圖> 1점 등 총 57점을 제시하였다(尹軫暎, 전계서, pp.407-409).

8) 유흥준, 이태호 편, 전계서, p.97.

9) 尹軫暎은 국내와 일본에 소장하고 있는 계획도 63점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16세기 작품은 <癸酉司馬榜會圖> <辛丑司馬榜會圖> <己丑司馬同榜錄> 등 50점, 18세기 後模本은 <南池耆老會圖> 등 7점, 年代未詳의 後模本 <癸酉司馬榜會圖> <壬癸契會圖> 등 6점을 제시하였다(尹軫暎, 전계서, pp.409-411).

1639년(인조17) 己卯년에 실시하였던 司馬試에 합격하고, 같은 해 式年文科에 丙科로 급제한 후 出仕하여 承文院 正字, 司憲府 掌令, 成川府使 등 수많은 內職과 外職을 역임하다가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乞養하여 영암군수를 지낸 후 세상을 떠난 德谷 洪鐘韻(1613-1658)이 남겨 놓은 것이다.

이 계첩은 서명에 보이듯이 己卯년에 실시한 司馬試, 즉 1639년 진사시험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들이 모여 만든 契會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표지 포함 6葉에 불과한 절첩본 형태의 작은 소책자로, 契會의 장면을 표현한 <契會圖>와 <題名>, 契會에 참석한 契員들의 인적사항을 간략히 기술한 <座目>, 그리고 契會의 사실과 계첩의 제작, 의의 등을 밝힌 <序文>, 參加者(契員)들이 모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契會詩>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계첩은 형태적 측면에서 볼 때, 16세기 계획도 형식인 족자 형태에서 17세기 첩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거의 완벽히 정형화된 절첩본 형태를 갖추고 있고, 契會圖의 구성 요소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契會圖에는 거의 없는 <序文>과 <契會詩>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계첩의 제작과 의의 등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 책은 지금까지 宗家에 비장되어 일반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첩의 존재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契會의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홍종운에 관한 가계와 생애 등 관련 연구 또한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에 수록된 기록을 중심으로 홍종운의 가계와 생애를 먼저 살펴보고, 둘째 『己卯司馬同年契帖』의 형태를 분석하여 서지적 특징을 밝혀보고, <契會圖>와 <座目>에 수록된 인물들을 분석하여 <契會圖>에 있는 인물과의 연관성을 밝혀보고, <序文> <契會詩>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契會의 사실과 契會의 결과물인 계첩의 제작과 의의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己卯司馬同年契帖』에 있는 그림의 畫風이 기존 契會圖의 畫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와 같은 美術史的 접근은 제한하고자 한다.

II. 德谷 洪鐘韻의 家系¹⁰⁾와 生涯¹¹⁾

德谷의 先代는 본래 慶尙道 安東의 豊山 출신으로 시조는 1242년(高麗 高宗29) 문과에 장원 급제한 후 國學直學을 지낸 洪之慶이다. 豊山 洪씨는 洪演(4세)까지 慶尙道 豊山에 世居하였으나, 고려말 洪演의 장남인 洪龜(5세)가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安東 豊山으로 내려 가다가 高陽縣, 즉 지금의 高陽郡 碧蹄面 城石里에 정착함으로써 비로소 京畿道 高陽縣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0) 洪鐘韻의 世系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德谷錄』, <世系>(洪智英 所藏本, 현재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위탁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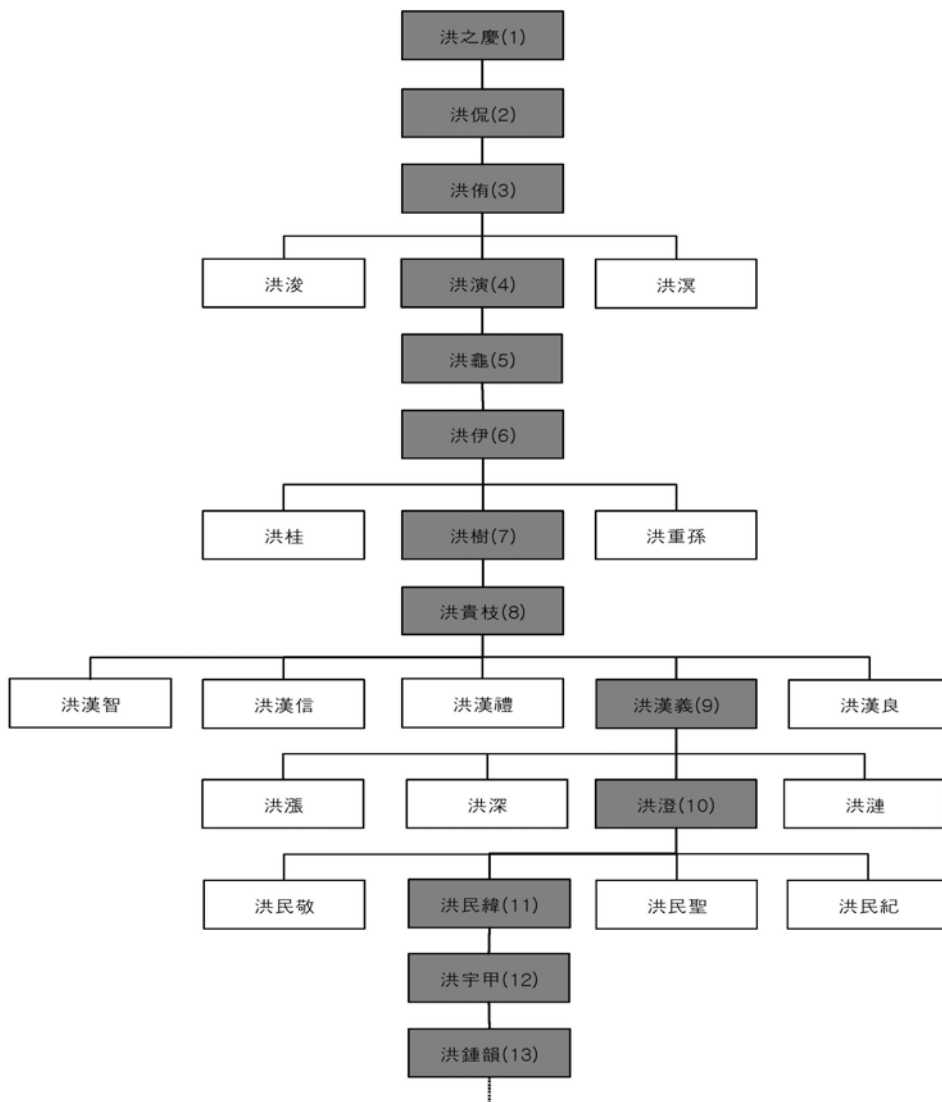
豊山洪氏大同譜刊行委員會, 『豊山洪氏大同譜』 卷1-2(大田 : 農經出版社, 1985).

11) 『德谷錄』 <德谷洪先生事實>, 『[重修本]德谷錄』 <德谷洪先生事實> <行狀>, 『承政院日記』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1호)

그리고 豊山 洪씨가 全羅道 羅州에 정주한 것은 洪伊(6세)의 3남 가운데 차남인 洪樹(7世)가 현 全羅南道 羅州市 老安面 金安里에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부친인 洪伊가 羅州牧의 南平縣令을 역임하였던 것이 정착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羅州郡 南平縣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洪貴枝(8세)의 5남 가운데 차남인 洪漢義(9세)이며, 홍중운의 祖父인 洪民緯(11세)가 南平縣 松村里(현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에 정착하여 현재까지 대대로 세거하고 있다(〈표 1〉참고).

〈표 1〉 洪鐘韻의 家系圖



洪鐘韻은 1613년 11월 24일(광해군5) 남평현 송촌리 고택에서 아버지 洪宇甲과 어머니 咸平李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字는 和伯인데 뒤에 遠伯으로 고쳤으며 號는 德谷이다. 태어나면 서부터 기골이 크고 총명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노는 것도 보통 아이들과 매우 달랐다. 특히 賦와 詩에 아주 능하여 당시 호남지방의 대표적 학자인 牛山 安邦俊(1573-1654) 선생이 그가 8세에 지은 〈鷄卵〉¹²⁾, 10세에 지은 〈磨石〉¹³⁾, 12세에 지은 〈西果〉¹⁴⁾ 등을 보고 매우 기특하게 여겼고, 또 士友들도 “이 아이의 理學과 忠孝는 하늘에서 타고 났다”라고 서로 칭찬하였다.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부지런히 하였지만 오직 경전의 뜻을 밝히는데 전력할 뿐 과거공부를 구하지 아니 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 그는 마침 병을 앓고 있었는데 강화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창고를 털고 의병을 모집하여 再從叔 進士 南甲과 함께 죽기로 맹세하고 길에 올라 礪山에 이르렀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군량을 아우인 進士 鐘發에게 맡겼다. 얼마 후 講和를 맺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마침내 문을 닫고 과거공부를 폐하였다.

그러나 부친인 雲溪公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뜻으로 여러 차례 과거 응시를 권유하여 27세 되던 해인 1639년(인조17) 생원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式年文科 丙科로 급제하였다. 大科에 급제한 후 임시로 承文院 正字에 임명되었으나 出仕보다는 강학에 뜻이 있었고, 더구나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것 때문에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어 부임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1640년 承文院 正字에서 翰林에 추천되었으나 또 사양하였고, 1641년에 다시 正字가 되었으나 또 사양하였다.

1642년에 비로소 출사하여 承文院 正字를 거쳐 1643년에는 承文院 注書를 맡았다. 특히 1644년 承文院 正字를 맡고 있을 때에 懷恩君 李德仁(1554-1644)을 추대하려는 반란을 꾸민 沈器遠의 무리를 임기응변으로 궤멸시킨 공을 임금에 가상히 여겨 『春秋』와 『史略』, 그리고 龍硯, 노비, 廐馬¹⁵⁾를 포상했으나, 당시에 막아선 자가 있어 錄券¹⁶⁾에는 공훈이 기록되지 못했다.¹⁷⁾ 1645년에 成均館 典籍과 兵曹佐郎을 역임하고 부모의 봉양을 위해 乞養하여 高山縣監이 되었는데, 고을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워 덕을 칭송하였다.

이듬해인 1646년에 물러날 뜻을 세워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후 부친인 雲溪公이 4월 15일 세상을 떠나자, 3년간의 시묘살이를 하였다. 1648년에 文翰에 관한 일로 禮曹佐郎에 임명되어 死

12) 『德谷錄』, 〈戲呈鷄卵〉(亦兒時作或云八歲) “하늘처럼 둥글고 밖은 흰데(則天圓外素), 땅인 양 가운데는 누렇구나(體地蘊中黃)”.

13) 『德谷錄』, 〈磨石〉(十歲作 ○牛山安先生見而大奇之) “두 조각 음과 양이 합하여(兩片陰陽合), 하나에서 동과 정으로 나뉜다(一中動靜分)”.

14) 『德谷錄』, 〈西果〉(十二歲作 ○牛山安先生見而亦大奇之) “쪼개서 그 가운데를 보노라면(剖而觀厥中), 마디마디 붉은 마음이 아름답구나(寸寸丹心美)”.

15) 內司僕寺에서 기르는 말.

16) 仁祖 22년(1644)에 沈器遠이 일으킨 역모사건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책록한 『寧國功臣錄券』을 말한다.

17) 『[重修本]德谷錄』의 朴光後(1637-1678)가 쓴 〈行狀〉에는 난이 평정된 뒤 아버지를 뵈기 위해 곧장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공훈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서 錄券에 기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其後以歸覲卽爲還鄉故錄勳人忘未載名于勳錄中).

六臣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길 청하였으며, 1649년 兵曹佐郎이 되었으나 모친의 봉양을 위해 사직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빈궁한 자들을 위하여 구휼을 시행하였고, 1650년에는 문신인 休庵 白仁傑(1497-1579)을 위한 서원¹⁸⁾을 창건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白江 李敬輿(1685-1657), 潛谷 金埴(1580-1658), 西河 李敏敍(1633-1688), 浦渚 趙翼(1579-1655), 老峯 閔鼎重(1628-1692) 등 서울의 저명한 관료들에게 편지를 보내, 본 道의 儒賢인 河西 金麟厚(1510-1560), 訥齋 朴祥(1474-1530), 隱峰 安邦俊(1573-1654)의 문학과 절의, 그리고 霽峰 高敬命(1533-1592), 忠勇將 金德齡(1567-1596)의 忠烈을 찬양하면서 관작을 올리고 시호를 내리며 사액을 내려주는 은전을 시행할 것과 그 자손을 거두어 등용해주길 청하였다.

이후 서울의 명유들이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벼슬에 나오길 권유하자 1651년 출사하여 成均館 直講, 兵曹正郎, 戶曹正郎을 차례로 역임하였고, 1652년 司諫院 正言으로 있을 때에는 임금의 傳旨에 응하여 <壬辰冬應旨上疏>¹⁹⁾를 올리니 임금으로부터 우악한 비답이 있었다. 또 司憲府 持平에 임명되자 조정의 이해, 재상의 득실, 봉당의 알력에 관한 일을 극언하고 상소하여 임금께 진달하려고 하니, 좌우에서 朱晦庵이 <封事>를 태워버린 고사²⁰⁾로 신신당부하여 그만두었다. 1653년에 開城經歷을 거쳐 1654년에는 正4品 司憲府 掌書에 임명되었는데, 사리에 맞게 간언하고 탄핵한 일이 많았다. 臺閣(司憲府와 司諫院)에 있으면서 전후로 20여 차례나 상소했는데 말이 매우 적절하였으며 정론에 입각하여 成憲(선왕이 정해 놓은 법)을 지켰다. 겨울에 成川府使에 임명되니, 공은 “노친을 모시고 먼 길을 가는 것이 편안하겠는가. 백성을 보살피는 데 재능이 없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라 말하고 결국 부임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1655년 모친의 봉양을 위해 乞養하여 靈巖郡守에 임명되었고, 1656년 어머니가 병을 앓자,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여 어머니의 병을 간호하였다. 이때 조정에서 世子侍講院 弼善²¹⁾에 임명하여 불렀으나 서울로 올라가지도 못한 채 겨우 하루가 지난 11월 15일 모친의 상을 당하니, 哀禮²²⁾를 다하기를 아버지의 상처처럼 하였다. 그러나 공은 애통함이 지나쳐 병을 얻었는데 다시는 털고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 짐작하고 『家訓書』와 『儀節』을 지어 자손들을 훈계하고, 또 자제들에게 “弼善은 이미 역임한 관직이 아니니 銘旌에 쓰지 말 것이며, 만사와 행장을 청하면 반드시 헛되이 칭송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하였다. 마침내 여막에서 세상을 뜨니 1658년(효종9) 10월 29일이었다. 淑人 原州 李氏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18) 현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에 있는 '蓬山書院'을 말한다.

19) 국정 전반에 걸쳐 폐단과 대안을 장황하게 제시한 상소로, 일명 <萬言疏>로도 불린다. 현재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20) 회암은 朱子의 호로 南宋 慶元 元年(1195)에 黨禍가 시작되어 趙丞相이 귀양을 가자 주자는 忠憤을 이기지 못하고 封事를 써서 올리려고 하다가 짐을 쳐서 遞과가 나오자 초고를 태워버렸다.

21) 조선시대에 세자의 교육과 시위를 담당하던 世子侍講院의 관원으로 정4품직이다.

22) 슬피하는 마음과 절차를 지키는 禮文.

Ⅲ. 『己卯司馬同年契帖』의 분석

1. 서지 및 형태분석

己卯司馬同年契帖/ 洪鐘韻(朝鮮) 編著. - 筆寫本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丙申(1656)].
折帖裝 1冊(6葉) : 插圖, 上下雙邊, 一葉 25.6 × 16.1cm, 朱絲欄, 6行20-22字 小字雙行, 無魚尾; 31.2×16.5cm.(전체길이 99.2cm)

表題: 司馬同年契帖

卷首題: 己卯司馬同年契帖

[寫記: 翌年丙申(1656)秋命畫工繕治契帖四件· · ·]

『己卯司馬同年契帖』은 겉표지 포함 총 6葉에 불과한 얇은 책으로 折摺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紙質은 얇은 다펀 종이를 여러 겹 붙여 만든 두터운 한지이며, 앞표지는 연꽃이 문양된 남색 비단으로 표지를 장식하였고, 표지의 서명이 수록된 題簽은 14.5 × 3.1cm 크기의 한지에 四周를 雙邊으로 그린 墨線 안에 ‘司馬同年契帖’이란 단아한 서체의 表題名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앞표지와 뒤표지를 제외하고 契帖 안은 붉은 색의 邊欄과 界線(朱絲欄)이 있는데, 邊欄은 卷子本이나 摺裝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上下雙邊·左右單邊의 형식이며, 1葉당 5-6행의 界線(朱絲欄)에 1행당 20-24字가 필사되어 있다.

먼저 契帖 내부를 살펴보면, 앞표지 裏面은 붉은 색의 邊欄 안에 己卯司馬同年契를 형상화한 <契會圖>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 면인 1면은 총 5행으로 1행에는 <卷首題(題名)>인 ‘己卯司馬同年契帖’이 있고, 2행부터 5행까지는 參加者(契員)의 姓名, 字, 出生年, 本貫, 號 등의 <座目>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2면부터 5면(뒤표지 裏面), 그리고 뒤표지 다음 면(1면)까지는 契會의 사실, 契帖의 제작 및 의의를 밝힌 <本文>과 함께 참석자들의 4월8구 契會詩를 차례로 다루고 있는데, 1葉당 6행이며, 1행당 20-24자가 필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16-17세기 同榜契會圖가 내리단이 족자형태 또는 내리단이 족자형태를 帖의 형태로 개량하여 모임을 기념한 산수화 형식의 그림을 포함해서, 그림 상단에 전서체로 쓴 모임의 題名과 그림, 참여자 명단을 나열한 座目, 그림의 여백이나 아래의 별도 공간에 명사의 기념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²³⁾과 비교해 볼 때, 홍종운의 『己卯司馬同年契帖』은 첫째, 형태적 측면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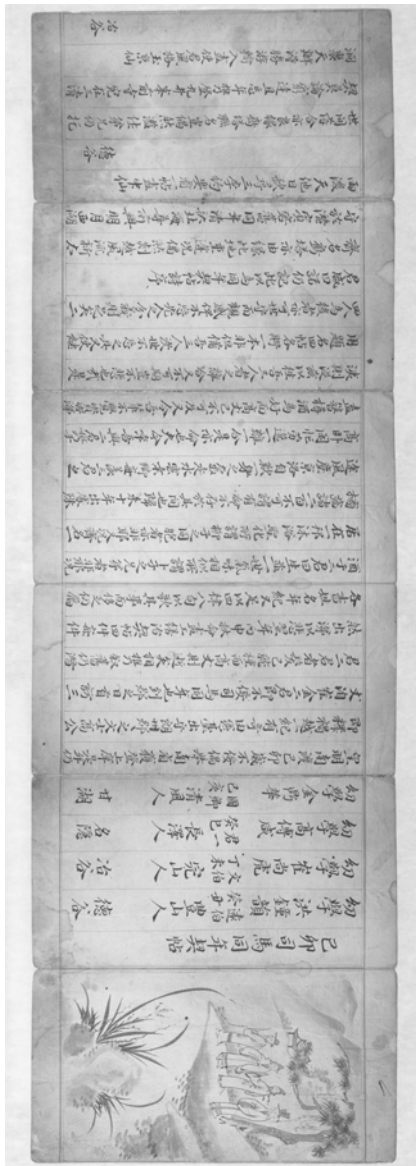
23)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朴廷蕙, “16·17세기의 司馬榜會圖,” 미술사연구, 16호(2002), pp.297-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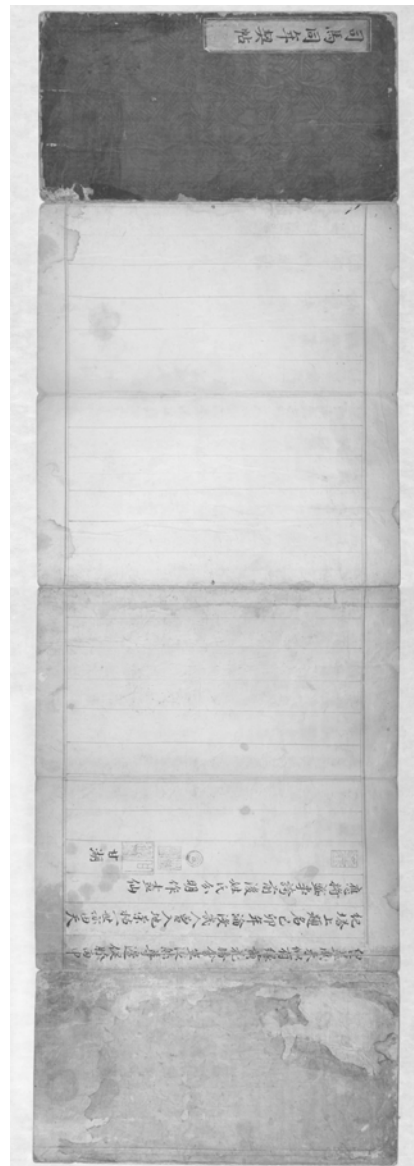
尹軫暎,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博士學位論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藝術專攻, 2004), pp.109-115, 194-201.

유홍준, 이태호 편,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조선시대 계획도와 전별시(서울 : 학고재, 2000), p.92.

16-17세기 계획도가 1枚의 내리단이 족자형 또는 내리단이 족자형을 折帖형으로 개량한 형태인 반면, 이 책은 6葉의 완전히 정형화된 접첩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둘째, 〈契會圖〉〈題名〉〈座目〉〈契會詩〉 등 16-17세기 契會圖가 갖추고 있는 구성요소를 따르고 있지만, 이전의 圖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序文〉을 수록하고 있어 契會의 사실과 契帖의 제작, 의의 등을 밝히는 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림 1〉『己卯司馬同年契帖』前面



〈그림 2〉『己卯司馬同年契帖』表紙와 後面

2. 내용분석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契帖은 크게 〈契會圖〉, 〈座目〉, 〈序文〉, 〈契會詩〉 등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契會圖〉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座目〉에 수록된 인물들을 분석하여 〈契會圖〉에 있는 인물과의 연관성을 밝혀보고, 마지막으로 〈序文〉과 〈契會詩〉의 내용을 분석하여, 契會의 사실, 契帖의 제작과 의의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2.1 <契會圖>와 <座目>의 분석

먼저 앞표지 裏面의 〈契會圖〉를 보면, 전체적으로 원경에는 안개 위로 높이 솟은 산을 배경으로 산 속에 작은 건물(寺)이 있고, 중경에는 계회가 벌어진 언덕 위에 옆으로 늘어진 老松 아래에 契에 참여한 네 사람이 있으며, 근경에는 開花한 난초가 그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인물을 圖의 가운데에 배치함으로써 1639년 司馬試에 합격한 동기생 4인의 계회 장면을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물의 표현은 사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바, 네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두루마기에 儒巾을 쓰고 대화를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두루마기에 官帽를 하고, 도포자락 속에 두 손을 넣은 채 공손히 두 사람의 대화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두루마기에 패랭이 모자를 쓰고 가늘은 지팡이를 잡은 채 세 사람을 등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契會圖〉의 다음 面에 있는 〈座目〉을 보면, 1행에 이 책의 卷首題(題名)인 ‘己卯司馬同年契帖’이 표기되어 있고, 2-5행까지 同期生 4명의 姓名, 字, 出生年, 本貫, 號 등의 〈座目〉이 다음과 같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幼學 洪鐘韻 遠伯 癸丑 豐山人 德谷
 幼學 崔尙虎 文伯 丁未 完山人 冶谷
 幼學 高傳咸 君一 癸巳 長澤人 名隱
 幼學 金鼎華 國卿 己亥 淸風人 甘湖

위의 4명 가운데 德谷 洪鐘韻에 대해서는 이미 앞장의 생애에서 자세히 언급하였기 때문에 3인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冶谷 崔尙虎는 1607년 출생으로 本貫은 全州, 字는 文伯, 號는 冶谷이며, 33세 되던 해인 1639년(인조17) 式年試에 生員 二等 15위로 합격하였다. 거주지는 靈巖이다.²⁴⁾ 관련 자료가 없어 몰년을 알 수 없지만, 『承政院日記』 顯宗 9年(1668) 10月 16日 條에 “전라도 능주의 안방준서원에 사액해 줄 것을 청하는 생원 최상호 등의 상소”²⁵⁾를 볼 때 1668년 이후까지 생존하였음을 알 수

24) 사마방목(司馬榜目), <http://gate.dbmedia.co.kr/chonnam/korea.asp?url_name=사마방목> [인용 2010. 12. 20].

있다. 특히 그가 쓴 隱峰 安邦俊(1573-1654)의 祭文에는 “門人生員崔尙虎”²⁶⁾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隱峰 선생의 門人임을 추정할 수 있다.

名隱 高傳咸은 1593년 출생으로 本貫은 長興, 字는 君一, 號는 名隱이며, 1639년(인조17) 式年試에 生員 3等 28위로 합격하였다.²⁷⁾²⁸⁾ 高傳咸은 霽峯 高敬命의 從孫으로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창의하여 公州에 이르렀으나 講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의병을 파하고 귀향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해 어머니가 병이 나자 단지혈로 정신이 들게 하였다.²⁹⁾ 거주지는 靈巖으로 1642년 졸하였다.

國卿 金鼎華는 兵曹佐郎, 僉知中樞府를 지낸 泗友堂 金光鐵의 3남 가운데 次男으로 1599년 태어났다. 本貫은 淸風, 字는 國卿, 號는 甘湖이다. 일찍이 詩詞를 즐겨 뜻이 科第에 두지 않았지만, 부친의 친명으로 41세 되던 해인 1639년(인조17년) 司馬試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효행이 지극하고 학문이 뛰어나 獻陵參奉, 密直院都事 등의 관직이 제수되었으나 不就하였다. 거주지는 靈巖으로 1660년 졸하였다. 未出刊된 遺稿集 『甘湖集』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諸家에 所錄된 것과 家門에 구전된 것을 모아 1997년 『甘湖遺稿集』을 간행하였다.³⁰⁾

이상과 같이 <契會圖>와 <座目>에 수록된 己卯年(1639) 司馬試에 합격한 동기생 네 사람을 살펴본 결과, 동기생 가운데 연장자 順은 名隱 高傳咸(1593-1642), 國卿 金鼎華(1559-1660), 冶谷 崔尙虎(1607-1668년 이후), 德谷 洪鐘韻(1613-1658)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契會圖>에 있는 4사람 가운데 가장 좌측에 패랭이 모자를 쓰고 가늘은 지팡이를 잡은 채 세 사람을 등지고 있는 사람은 1642년 이미 세상을 떠나 이 契會에 참석하지 못한 名隱 高傳咸을 추모하여 그린 것이며, 두루마기에 儒巾을 쓰고 마주 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앙의 두 사람 중 좀 더 나이 든 모습의 왼쪽이 冶谷 崔尙虎, 그 오른쪽은 甘湖 金鼎華, 그리고 두루마기에 官帽를 쓰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채 두 분의 대화를 경청하고 있는 사람은 德谷 洪鐘韻으로 밝혀졌다.

25) 承政院日記, 현종 9년 10월 16일(신사) “○ 全羅道生員崔尙虎等上疏。大概, 綾州地, 故參議安邦俊書院請額事。入啓。以上朝報”。

26) 牛山先生年譜, 卷2, 21張 左3行, <祭隱峰先生文>, “年號月日門人生員崔尙虎”。

27) 사마방목(司馬榜目), <http://gate.dbmedia.co.kr/chonnam/korea.asp?url_name=사마방목> [인용 2010. 12. 20].

28) 한국족보자료시스템, <http://jokbo.skku.edu/sung/sungMain.jsp?pid=61601801012000076300&ganmun=yes> [인용 2010. 12. 22].

29) “高傳咸長澤人霽峯敬命從孫也丙子倡義至公州而聞講和痛哭罷兵而歸性又至孝母病斷指進血得穌”(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GDS/GDS_EPJICHRR.jsp?setid=769185&pos=1&ptype=list&subtype=ej&cn=GS42559_00&lclass=04&subtitlenum=6702> [인용 2010. 12. 23].

30) 『甘湖遺稿集』의 <甘湖先生傳家行狀抄>·<甘湖先生家狀>·<甘湖先生傳>·<甘湖進士淸風金公鼎華之墓>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金裕先 編, 金斗萬 譯註, 甘湖遺稿集(光州 : 湖南文化社, 1997).

2.2 <序文>과 <契會詩>의 분석

<序文>은 본 계첩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契會의 사실과 관련하여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열렸는가, 그리고 契會의 결과로 만들어진 계첩의 제작과 의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契會의 결성 계기에 대해

“기묘년(仁祖17, 1639)에 나는 우연히 南省試³¹⁾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해에 잇달아 문과에 급제하였다. 16년이 지나 사헌부를 거쳐 영암군수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 고을의 문사인 고부함 어른과 최상호, 김정호 두분은 나와 함께 진사시험에 합격한 동기생이었다. 이 고을에 부임하던 날 가장 먼저 세 분을 찾아 보았더니, 두 분은 머리가 이미 백발이 되었고, 고씨 어른은 돌아 가셨다.”³²⁾

라고 기술한 바와 같이 契會의 결성 계기를 진사시험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契帖에 수록되어 있는 3명의 <契會詩>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덕곡 홍종운은

“나란히 진사된 것도 또한 인연인데, 이곳에서 다시 만나니 하물며 우연히 그러하겠는냐”³³⁾라고 하였고,

야곡 최상호는

“세간의 부평초 같은 만남도 좋은 인연인데, 진사시에 함께 합격하니 어찌 우연히 그러하겠는냐”³⁴⁾라 하였으며,

감호 김정호는 “검은 일산³⁵⁾ 남으로 오니 인연 있는 듯 ... 기묘년엔 진사시험에 나란히 이름 올렸지”³⁶⁾라 하였다.

따라서 契會는 1639년 실시한 진사시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의 인연이 契會의 결성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 進士를 뽑던 시험으로 高麗는 國子監試, 朝鮮은 成均試 또는 進士試라 하였다.

32) 『己卯司馬同年契帖』, 2面 1~4行. “皇明南渡己卯歲不佞偶舉南省獲登上庠是年仍即釋褐越一紀有奇由憲臺出守朗州郡郡之文士高公丈泊崔金二君即不佞司馬同年也到郡之日首訪三君二君者髮已就種而高丈則逝矣”

33) *ibid.*, 4面 5行. “齊名鴈塔亦由緣此地重逢況偶然...”

34) *ibid.*, 5面 3行. “世間萍合亦良緣鴈塔聯名豈偶然...”

35) 검은 일산(皂蓋)은 漢나라 때 지방 수령들이 타는 수레의 뚜껑을 검정색으로 하였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일반적으로 지방 수령의 행차를 언급할 때 인용하며, 여기서는 홍종운이 영암군수로 내려왔다는 뜻이다.

36) 『己卯司馬同年契帖』, 後1面 1-2行. “皂蓋南來似有緣 ... 塔上題名己卯年”

그러면 이들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영암 군수에 부임하던 날 가장 먼저 세 분을 찾아 보았더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홍종운이 영암 군수에 부임한 날짜가 밝혀지면 이들이 만난 날짜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장의 홍종운의 생애에서 1655년 늙으신 모친의 봉양을 위해 乞養하여 靈巖郡守에 부임하였다고 하였을 뿐 정확한 부임 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承政院日記』에 의하면 홍종운은 1655년 11월 4일 靈巖郡守에 제수되고,³⁷⁾ 同年 11월 18일 하직 인사³⁸⁾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655년 11월 18일 하직 인사를 하였다면 언제 영암 군수에 부임하였을까? 魚叔權의 『攷事撮要』 卷下 〈八道程道〉條에 따르면 漢陽에서 靈巖까지는 9일이 소요된다³⁹⁾고 하였으므로, 홍종운이 영암군에 도착한 것은 11월 28일이며, 늦어도 1655년 12월 초 영암 군수에 부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임 군수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볼 때 부임한 첫 날 바로 이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암군수에 부임하던 날 가장 먼저 세 분을 찾아 보았더니, 두 분은 머리가 이미 백발이 되었고, 고씨 어른은 돌아 가셨다”라고 언급되어 있듯이 부임한 첫날 동기생 3명을 찾아 만나보고, 서로 안부를 확인하면서 후일을 기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契會는 언제, 어디에서 열렸을까? 이에 대해 계첩의 〈契會詩〉에 계획이 열린 날짜를 추정할 수 있는 편린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덕곡 홍종운은

“맑은 가을 하늘 북해에는 술동이 앞에 흥이 일고, 달 밝은 서호에는 비 개인 하늘이네”⁴⁰⁾라고 하여 달 밝은 가을 밤에 계획이 열렸음을 은연중에 암시하였고,

감호 김정호는 “국화 필 때 멋진 모임 어찌 범연할까. 병신년에는 술동이 가에 무릅 맞대 얘기하고”⁴¹⁾라고 하여 병신년(1656) 국화 피는 가을에 모임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야곡 최상호는 “손잡고 구정봉 앞 절을 올라보니”⁴²⁾라고 하여 靈巖 月出山의 구정봉 서쪽에 있는 용암사⁴³⁾에서 계획이 열렸음을 밝히고 있다.

37) 承政院日記, 효종 6년 11월 4일 (갑신). “有政 ... 洪鐘韻爲靈巖郡守 ...”

38) *Ibid.*, 효종 6년 11월 18일 (무술). “下直 ... 靈巖郡守洪鐘韻 ...”

39) 魚叔權 編, 攷事撮要(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韓國朝91-41) 卷下, p.153. “靈巖 九日程...”

40) 『己卯司馬同年契帖』, 4面6行~5面1行. “淸秋北海尊前興明月西湖雨後天”

41) *Ibid.*, 後1面1行~2行. “黃花勝會豈泛然尊邊促膝丙申紀”

42) *Ibid.*, 後1面1行~2行. “携登九井峰前寺”

43) 현재는 절은 없고, 절터만 남아 있다.

따라서 <契會詩>에 수록된 내용을 종합하여 契會가 열린 시기와 장소를 밝혀보면, 1656년 국화 피는 가을에 영암 월출산에서 계회가 열렸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契會의 결성 계기와 계회가 열린 시기, 장소 등을 정리해 보면, 1639년 실시한 진사시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의 인연으로 계회가 결성되었으며, 홍중운이 늙으신 모친의 봉양을 위해 걸양하여 1655년 12월 초 부임 한 후 다음 해가 되는 1656년 국화 피는 가을에 영암 월출산에서 계회가 열렸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계첩의 제작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계첩의 제작과 관련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이에 대해 契帖의 <序文>에는

“이듬해인 병신년 가을에 화공에게 명하여 계첩 네 건을 만들도록 하고, 매 건마다 각각 성명, 생년, 본관을 썼다. 또 사울팔구의 시를 지어 그 사실을 노래하여 아름답게 꾸몄다.”⁴⁴⁾

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계첩의 제작 시기와 제작자는 丙申年(1656) 가을에 畫工, 즉 畫員에게 命하여 4부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계첩은 어디에서 제작되었을까?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홍중운이 1655년 12월 초 영암 군수에 부임한 이후부터 1656년 11월 15일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까지 그의 행적과 계첩 제작의 命을 받은 조선시대의 畫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655년 12월 초부터 1656년 11월 15일까지 홍중운의 행적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장의 생애와 위에서 논술한 契會의 결성 시기, 계첩의 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리해 보면,

- 1655년 12월 初에 영암 군수에 부임하였다가,
- 1656년 가을 영암 월출산에서 동기생의 계회를 열고,
- 1656년 가을에 화공에게 명하여 계첩 4부를 제작하였고,
- 1656년 어머니가 병을 앓자,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여 어머니를 간병하였는데,
- 1656년 11월 14일 조정에서 弼善에 임명하여 불렀으나 겨우 하루가 지난
- 1656년 11월 15일 모친 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4) 『己卯司馬同年契帖』, 2面5行~6行. “翌年丙申秋命畫工繕治契帖四件每件各書姓名年紀又足以四律八句以歌其事而侈之”

따라서 홍중운은 영암 군수에 부임한 1655년 12월 초부터 모친 상을 당한 11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任地와 고향을 떠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국가적 繪事를 전담했던 관원화가인 畫員은 圖畫署를 비롯하여 지방 관아에 소속되었는데, 도화서의 정원은 조선 전기에는 20명, 후기에는 30명이었으며 경기도를 제외한 7도와 통제부, 6兵營과 5곳의 水營에는 각각 1명씩 두었다.⁴⁵⁾ 그러므로 전라도에는 감영이 있는 全州, 여수의 전라좌수영, 해남의 전라우수영, 강진의 전라병영 등 4곳에 畫員이 배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계첩이 어디에서 제작되었는가를 추정해 보면, 홍중운은 1655년 12월 초 영암 군수에 부임하여 모친 상을 당한 1656년 11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任地와 고향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첩의 제작은 任地인 靈巖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소속된 화원에게 명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영암의 바로 인근에 위치한 강진의 전라병영에 소속된 화원에게 명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첩의 제작 의의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계첩의 제작 의의에 대해

“이제 다행히 두 사람과 손잡고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우호를 다지건만 고씨 어른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으니, 또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구려. 이후로 우리 세 사람도 헤어지고 만남을 또한 기약할 수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이에 네 건의 계첩에 이름을 적어서 각각 한 건씩 간직케 하니, 우리 세 사람이 영원히 잊지 않는 징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네 사람의 후손들도 대대로 우의를 닦아 보고 느끼면서 선인들이 나눈 정의를 잊지 않게 한다면 족하겠네라고 했다. 두 사람이 다 그렇게 하세라고 답하기에 이 사실을 동년계첩시에 서문하였다.”⁴⁶⁾

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계첩의 제작 의의는 첫째, 이미 운명을 달리한 고부함을 포함하여 동기생 4명의 영원히 잊지 않는 징표를 삼기 위한 것이며, 둘째, 동기생 4명의 후손들도 자신들이 죽더라도 대대로 그 우의를 닦아 각별한 인연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계첩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45) daum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5h2296a>> [인용 2012. 1. 25]

46) 『己卯司馬同年契帖』, 3面5行~4面4行. “夫今幸吾與二君携手盍簪樽酒爲好而高丈已不可及又令吾輩不覺資咨涕洟則從茲以往吾三人者之離合又不可期豈不悲也哉是用題名四帖各貯一本非但備吾三人沒世不忘之具又使繼四人爲後者亦可世守而觀感俾不忘先人之分義則足矣二君咸曰諾仍記此以爲同年契帖詩序”

IV. 結 論

지금까지 德谷 洪鐘韻이 1639년 司馬試에 합격한 동기생들과 계회를 연 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한 『己卯司馬同年契帖』에 대하여 契帖의 형태적 특징과 계첩에 수록된 〈契會圖〉, 〈座目〉, 〈序文〉, 〈契會詩〉 등을 분석하여 〈契會圖〉에 그려져 있는 인물과 〈座目〉에 수록된 인물과의 관계, 契會의 사실, 계첩의 제작과 의의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己卯司馬同年契帖』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 1) 형태적 측면에서 16-17세기 계회도가 1枚의 내리단이 족자형 또는 내리단이 족자형을 折帖형으로 개량한 형태인 반면, 이 계첩은 6葉으로 이루어진 완전히 정형화된 절첩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 2) 契會圖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본 결과, 〈契會圖〉 〈題名〉 〈座目〉 〈契會詩〉 등 16-17세기 契會圖가 갖추고 있는 구성요소를 따르고 있지만, 이전의 契會圖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序文〉을 수록하고 있어 契會의 사실과 契帖의 제작, 의의 등을 밝히는 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契會圖〉와 〈座目〉에 수록된 네 사람을 분석해 본 결과, 동기생 가운데 가장 연장자는 名隱 高傳咸(1593-1642)이며, 이어서 國卿 金鼎華(1559-1660), 冶谷 崔尙虎(1607-1668년 이후), 德谷 洪鐘韻(1613-1658)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契會圖〉에 있는 4사람 가운데 가장 좌측에 裴璽가 모자를 쓰고 가늘은 지팡이를 잡은 채 세 사람을 등지고 있는 사람은 1642년에 이미 세상을 떠난 名隱 高傳咸으로 확인되었으며, 두루마기에 儒巾을 쓰고 마주 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앙의 두 사람 중 좀 더 나이 든 모습을 하고 있는 왼쪽이 冶谷 崔尙虎, 그 오른쪽은 甘湖 金鼎華, 그리고 두루마기에 官帽를 쓰고 한 걸음 물러선 채 두 사람의 대화를 경청하고 있는 사람은 德谷 洪鐘韻으로 밝혀졌다.

셋째, 〈序文〉과 〈契會詩〉를 분석한 결과, 契會의 결성 계기와 계회가 열린 시기, 장소 등을 정리해 보면, 1639년 실시한 진사시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의 인연으로 계회가 결성되었으며, 홍종운이 늙으신 모친의 봉양을 위해 결양하여 1655년 12월 초 부임 한 후 다음 해가 되는 1656년 국화 피는 가을에 영암 월출산에서 계회가 열렸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계첩의 제작 시기와 제작자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 丙申年(1656) 가을에 畫工, 즉 畫員에게 命하여 4부를 제작하였으며, 계첩을 만든 곳은 홍종운이 1655년 12월 초 영암 군수에 부임하여

모친 상을 당한 1656년 11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任地와 고향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任地인 靈巖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소속된 회원에게 명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영암의 바로 인근에 위치한 강진의 전라병영에 소속된 회원에게 명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첩의 제작 의의는 이미 운명을 달리한 고부함을 포함하여 동기생 4명의 영원히 잊지 않는 징표를 삼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동기생 4명의 후손들도 자신들이 죽더라도 대대로 그 우의를 닦아 각별한 인연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계첩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문헌

1) 단행본

金裕先 編, 金斗萬 譯註. 甘湖遺稿集. 光州 : 湖南文化社, 1997.

安輝濬. 韓國繪畫의 傳統. 서울: 文藝出版社, 1988.

유홍준, 이태호 편.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조선시대 계획도와 전별시. 서울 : 학고재, 2000.

豊山洪氏大同譜刊行委員會. 豊山洪氏大同譜. 卷1-2. 大田 : 農經出版社, 1985.

2) 정기간행물

安輝濬. “十六世紀中葉의 契會圖를 통해 본 朝鮮王朝時代 繪畫樣式의 變遷.” 美術資料, 18號, pp.36-42.

安輝濬.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歷史學報, 第六十五輯(1975. 3), pp.119-123.

朴廷蕙. “16·17세기의 司馬榜會圖.” 미술사연구, 16호(2002), pp.297-332.

윤진영. “임오년(1582) 사마시 합격 동기생들의 방회도.” 문헌과해석, 2011, 통권15호, pp.138-147.

3) 학위논문

尹軫暎.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博士學位論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藝術專攻, 2004.

4) 전자자료

daum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5h2296a>>.
NAVER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bsnmp/12003270649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사마방목(司馬榜目), <http://gate.dbmedia.co.kr/chonnam/korea.asp?url__name=사마방목>.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encykorea.htm>>.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족보자료시스템, <<http://jokbo.skku.edu/>>.

5) 고서

己卯司馬同年契帖, 筆寫本, 洪智英 所藏本(현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위탁 보관)
德谷錄, 筆寫本, 洪智英 所藏本(현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위탁 보관)
[重修本] 德谷錄, 筆寫本, 洪智英 所藏本(현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위탁 보관)
牛山先生年譜, 木活字本,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壬辰冬應旨上疏, 筆寫本, 洪智英 所藏本(현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위탁 보관)

